

주요용어 : 종양간호연구, 분석

국내 종양간호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오복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추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진단기술의 발전 및 통계 방법의 진전 등으로 암 발생률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암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실무는 더욱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다. 임상실무의 과학적인 기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Smith and Stullenbarger, 1995).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특정분야나 연구주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련화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최선훈 등, 1998). 따라서 최근 연구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Smith와 Stullenbarger(1995)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간의 종양 간호연구 428편을 분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선옥과 홍은영(1997)이 1985년부터 1997년 2월까지 발표된 종양간호연구 중 실험연구

25편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임선옥과 홍은영(1997)의 연구는 간호중재 효과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임상실무에서 적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제시하였고, 추후 간호중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선옥, 홍은영(1997)의 연구는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제시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최선훈 등(1998)이 1980년부터 1998년 2월까지 출판된 국내 종양간호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 149편을 대상으로 연구출처, 연구설계, 측정도구, 실험연구 및 질적 연구의 개념 등을 분석하여 종양간호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연구설계별로 종양연구의 주제를 분석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종양연구의 주제는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출판된 종양간호연구를 대상으로 종양간호연구의 총체적인 주제와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종양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종양간호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고 추후 종양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1) 종양연구의 출처,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자를 파악한

* 본 논문은 삼육대학교 연구기금에 의해 수행됨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다.

- 2) 상관관계와 비교연구의 개념분포를 확인한다.
- 3) 실험연구의 간호중재와 결과변수 빈도를 확인한다.
- 4) 중앙연구의 주요개념과 주제를 확인한다.

3.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학 석, 박사 학위논문 자료실에서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으므로 이에 등록되지 않은 학위논문은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 2)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중앙연구는 전체 학회지 목록에서 선정하였으나, 기타 학회지에 게재된 중앙연구는 전남대학교 보건연구 정보센터(국내 94개 보건관련 학술지 정보제공)에 수록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8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우리나라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139편(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2003)과 대한간호학회지와 간호학 분과 학회지, 그리고 중앙간호학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및 경북간호과학지에 게재된 암환자 관련 논문 중 중복 게재된 논문을 제외한 총 21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지의 전체 논문제목에서 중앙개념이 제시된 논문을 목록화하였으며, 기타 학술지의 중앙연구논문은 전남대학교 보건정보자료실(전남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 2003)에서 검색하여 목록화하였다. 단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된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원본을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선정된 논문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논문발표년도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출처 : 학위논문과 비학위 논문으로 분류하고 비학위 논문은 게재학술지별로 구분하였다.
- 3) 연구설계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및 Q방법론으로

분류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로 분류하였다.

실험설계는 유사실험설계와 원시실험설계로 분류하고, 비실험설계는 기술적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 비교연구 및 방법론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방법론적연구에는 측정도구개발연구와 간호중재프로그램개발 등을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 사례연구, 혼종모형, 내용분석, 문화기술지 및 근거이론연구로 분류하였다.

Q방법론은 양적 연구이긴 하지만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추출하는 방법이므로 특성상 따로 분석하였다(최선희 등, 1998).

- 4) 연구 대상자 : 연구대상자는 크게 암환자와 비환자로 분류하였다. 암환자는 다시 입원환자와 재가환자로 구분하고 아동, 성인환자 및 진단명 별로 분류하였다. 동일연구에서 대상자도 환자와 비환자군이 있을 때 각각 분류하였다. 비환자의 경우는 다양한 대상자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간호사, 의사, 가족, 간호학생 등으로 분류하였다.
- 5) 상관관계 개념 분포 : 상관관계연구인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개념분포를 확인하였다.
- 6) 비교대상과 비교개념 : 비교연구인 경우 비교대상별로 비교한 개념을 분류하였다.
- 7) 실험연구의 경우 : 사용된 간호중재별, 결과변수 빈도로 분류하였다.
- 8) 중앙연구의 주제 : 연구의 주요개념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상관관계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출처 및 유형

암 관련 간호연구의 출처는 학위논문 139편(64.9%), 비학위논문 75편(35.1%)으로 학위논문이 많았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이 123편으로 학위논문의 8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16편(11.5%)에 불과하다. 비학위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대한간호학회지 31편(41.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성인간호학회지 24편(32.0%), 대한중앙간호학회지 13편(17.3%)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논문 편수는 200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평균 41권이 나오고 있다(표 1).

연구설계별로는 양적 연구 총 196편(91.6%), 질적

〈표 1〉 연도별 연구출처

N=21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학위논문(N=139)							
석사	15	22	20	26	35	5	123
박사	2	4	2	3	4	1	16
소계	17	26	22	29	38	6	139
비학위논문(N=75)							
대한간호학회지	8	7	7	7	2		31
성인간호학회지	5	4	3	5	7		24
중앙간호학회지				7	3	3	13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	1	1			3
아동간호학회지					1		1
기본간호학회지				1			1
경북간호과학지		1					1
재활간호학회지		1					1
소계	13	15	11	20	13	3	75
총계	30	41	33	49	51	9	214

〈표 2〉 연도별 연구설계

N=214

연도	양적 연구(N=196)								질적 연구(N=16)					계	
	실험연구(N=28)		비실험연구(N=168)						사례	혼종 모형	내용 분석	문화 기술	근거 이론		Q방법론(N=2)
유사	원시	조사	상관	비교	방법론	현상학	방법론	현상학						사례	
1998	2		12	7	2	3	2				1			1	30
1999	5	1	13	12	1	6	1	1					1		41
2000	1		14	12	2	3	1								33
2001	7	2	15	15	3	4	1	1						1	42
2002	6	2	21	7	3	5	3		1		1		2		47
2003	2		3		3	2									7
계	23	5	78	53	14	23	8	2	1	1	1	1	3	2	214

연구 16편(7.5%), Q방법론연구 2편(0.9%)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는 실험연구가 28편(14.3%), 비실험연구 168편(85.7%)으로 비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실험연구에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78편(4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상관관계연구 53편(31.5%), 방법론적 연구 23편(13.7%), 비교연구 14편(8.3%)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16편으로 현상학적연구 8편(5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거이론방법 연구 3편이었다(표 2).

2. 연구 대상자

우리나라 암 관련 간호연구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71.4%(153편), 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8%(53편), 기타 연구는 8편(3.8%)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명의 분류 없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7편(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 명별 암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환자 대상연구가 28편(1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유형별 환자에서는 항암화학요법 대상자 연구가 23편으로 가장 많았다.

암환자 종류별로는 입원환자 대상의 연구가 122편(79.7%)으로 재가환자 대상 연구 31편(20.1%)보다 많았다. 암환자 대상 중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전체에서 9편(4.2%)에 불과하였다.

환자가 아닌 연구대상자로는 가족이 32편(6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간호사 12편(22.6%)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

암환자(N=153)				비환자(N=53)				
입원(N=122)		재가(N=31)		간호사	의사	가족	간호학생	기타
아동	성인	아동	성인					
8	114	1	30	12	1	32	1	7

〈표 3-1〉진단명 별 치료유형별 연구대상자

암환자(N=153)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유방암	백혈병	위암	폐암	소화기암	혈액조양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소아암	암환자
3	23	28	11	8	3	3	2	2	1	1	1	67

3. 상관관계연구

상관관계연구는 총 53편으로 다루어진 주개념은 사회지지(8편), 피로(7편), 스트레스(6편), 희망(5편) 및 삶의 질(5편)순으로 나타났다.

4. 비교연구

비교연구는 총 14편으로 비실험연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교대상과 비교개념은 〈표 5〉와 같다.

비교대상에서는 암환자와 일반인 대상으로 행위의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암환자와 가족원의 지각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 2편으로 나타났다. 비교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5. 실험연구

실험연구는 총 27편으로 간호중재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간호교육 중재가 6편(2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보제공, 통증관리 및 구강간호연구가 각각 3편으로 나타났고, 운동중재, 발반사마사지, 이완요법중재, 자조집단프로그램 연구가 각각 2편으로 나타났다.

6. 중앙연구의 주제

〈표 4〉 상관관계연구의 관련개념분포

N=53

주개념(편수)	관련개념
사회적 지지(8)	불안, 가족부담감, 배우자 및 가족·의료인지지, 고통증상, 사회 심리적 적응, 영적 건강, 신체적 불편감, 희망, 스트레스, 대처, 건강, 영적 안녕
피로(7)	일상활동장애, 수면, 불만족, 가족지지, 신체적·정서적 증상, 기능적 상태, 삶의 질, 희망, 수면의 질
스트레스(6)	건강, 사회적지지, 적응, 스트레스 반응, 대처유형, 소진, 대응방법
희망(5)	죽음, 불안,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대응양상, 영적 안녕, 사회심리적응, 피로, 아편량펩타이드
삶의 질, 삶의 의미(5)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 고통, 부담감, 삶의 만족
건강증진행위(4)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건강통제위, 장애성, 자아존중감, 심각성, 민감성, 역할 스트레스
불안, 공포(4)	수면, 통증, 공포, 불확실성, 대처방식, 간호만족도
자가간호행위(3)	자가간호지식, 가족지지,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우울(3)	자기효능, 대처효과성, 건강상태, 불안, 사회적지지
영적 안녕, 영적 요구(2)	가족지지, 희망
질병적응(1)	스트레스인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응전략
성생활만족(1)	신체적 불편감, 배우자 지지
간호사의 소진(1)	대처유형
피부자극, 관심전환(1)	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 음식섭취량(1)	영양상태
불확실성(1)	대처 및 우울
가족원의 부담감(1)	가족기능

〈표 5〉 비교대상과 비교개념

비교대상	비교개념	편수
정상여성/유방암생존자	성적행동	1
환자/일반인	유방암초기검진효과	1
환자/일반인	대장암위험요인	1
암병동간호사/일반병동간호사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1
암환자/가족	무력감	1
암환아 어머니/간호사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1
항암화학요법환자/자가조혈모세포이식환자	삶의 질	1
원인지각	대처, 우울	1
액와립프절 절제정도	신체징후, 일상생활정도	1
말기폐암환자	가정호스피스/병원입원치료	1
암환자/가족원	대처방법	1
암환자/가족원	간호요구	1
호스피스병동/일반병동	간호증재	1
의사/간호사	암환자인식	1

〈표 6〉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및 결과변수

N=28

연구자(년도)	주제(편수)	간호중재	결과변수(결과)	대상자
서순립, 이완기(2003)	자가간호(6)	심리교육	증상관리	재가 암환자
조영수(2002)		화학요법에 관한 개별적 교육	암환자의 지식과 자가간호수행(지지)	항암화학 요법환자
박선영(2001)		암예방과 조기발견교육	암지식(지지) 예방적 건강행위(기각)	중년기 여성
이혜영(2000)		개별교육과 전화상담	자가간호수행(지지)	혈액종양 환자
박소연(1999)		환자교육	방사선요법에 관한 지식과 자가간호수행(지지)	암환자
김지영(1998)		구조화된 환자교육	부작용(기각) 자가간호(지지)	항암화학 요법환자
권인각, 황문숙, 김지현(2002)	통증관리(5)	통증관리교육	통증저도(지지)	재가말기암환자
권인각(1999)		통증교육	통증관리(지지)	의료인
이원희(1999)		통증관리교육	통증관리(지지)	암환자
한형환(2001)		발반사마사지	수술후 동통(지지)	위암절제술환자
장화경(2001)		발반사마사지	통증(기각) 기분(지지)	유방암 환자
박정은(2002)	불안(3)	정보제공	간호요구 충족 및 불안(지지)	암환자 가족
주미자(2002)		정보제공	수술전 불안(기각)	위절제술 환자
이혜원(2001)		정보적지지제공	사회적지지, 불안, 우울(지지) 안녕(기각)	영적 말기암환자가족
강수경(2002)	구강불편감(3)	구강간호	구내염(기각)	항암화학 요법환자
권상민(2001)		구강간호교육	구강불편감(부분적지지)	항암화학 요법환자
이경남, 태용숙(1999)		찬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간호	구강불편감(지지)	항암화학 요법환자
정경희(1999)	오심/구토(3)	근육이완요법	오심, 구토(기각), 불안(지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아동

중앙연구의 주제는 연구논문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는데 상관연구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표 6>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및 결과변수(계속)

N=28

연구자(년도)	주제	간호중재	반응(결과)변수	대상자
변희진(1998)		지시적 심상요법	오심, 구토(기각) 불안(지지)	항암화학요법환자
정은숙(2002)		향기흡입	오심, 구토와 식욕부진(지지)	항암화학요법환자
소향숙, 윤정환, 문재용(2002)	신체기능(2)	에어로빅댄스	신체기능(지지)	유방절제술여성
채영란, 최명애		운동프로그램	심폐기능 및 어깨관절기능(지지)	유방암수술환자
강진호(2001)	삶의 질(3)	영적간호중재	삶의 질(지지)	암환자
유승연(2001)		호스피스 간호	삶의 질(부분적지지)	말기 암환자
김미숙, 전미선(2002)		자조집단 프로그램	삶의 질(기각)	유방암 환자
김윤옥(2003)	기타(3)	가정간호제공	불편감, 가족부담감(지지)	암환자
권인각, 박은영, 황윤희, 류성옥, 이은옥(2001)		자조집단과정	자기초월감(기각)	유방암환자
오상은(1999)		지시간호중재 (사회적, 신체적, 정보적, 가족지지)	신체상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지지)	암환자

<표 7> 중앙연구의 주제

N= 214

주제	중심개념	편수
피로	피로영향요인	4
	피로 경험	2
	피로양상(개념분석, 도구검증)	7
	소계	13(6.1%)
	대처	사회심리적적응/질병적응
	대처(방법)	3
	성생활	2
	생활양상	1
소계		11(5.1%)
간호중재 개발	간호중재프로토콜개발	6
	웹기반 암자기간호알고리즘개발	1
	Critical Pathway개발	1
	암간호정보 시스템 개발	1
소계		9(4.2%)
대체요법	대체요법	5
	보완대체요법치유경험	1
	소계	6(2.8%)
암질병 경험	보호격리경험	1
	안위 경험	1
	아동학교생활경험	1
	골수이식경험	1
	암체험	1
	말기암환자가족경험	1
소계		6(2.8%)
원인지각	암위험요인	3
	원인지각	2
	소계	5(2.3%)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4
	소계	4(1.9%)

	희망	8	
	스트레스	6	
	부담감	6	
	우울/무력감	5	
	불안	4	
심리/영적 문제	영성(영적 건강)	3	
	고통	4	
	자아상(신체상)	2	
	불확실성	1	
	절망감	1	
	자존감	1	
소계		41(19.2%)	
증상조절	통증관리(통증원인, 양상)	16	
	식욕부진/오심/구토	8	
	영양상태/음식선호도	4	
	구강불편감	4	
	부작용(WBC감소)	2	
	피부건조/소양증	1	
	감염원인균 규명	1	
	증상관리	1	
	소계		37(17.3%)
	삶의 질	삶의 질(도구개발, 요인, 관계)	23
삶의 의미		1	
소계		24(11.2%)	
자가간호수행 /건강행위	자가간호수행	10	
	검사/예방행위	5	
	건강증진행위	4	
	치료추구행위	1	
	지식	1	
소계		21(9.9%)	

〈표 7〉종양연구의 주제(계속) N = 214

주제	중심개념	편수	
교육요구	교육정보요구(측정도구)	12	
	가정간호요구	3	
	가족요구(사정)	2	
	소계	17(7.9%)	
기능상태	신체기능	2	
	심폐기능(어깨관절기능)	1	
	소계	3(1.4%)	
호스피스(가정)	호스피스	2	
	소계	2(0.9%)	
기타	간호서비스	2	
	자기형성감증진	1	
	암환자지역사회관리실태	1	
	암 임상정보활용현황	1	
	암 고지	1	
	암 환자 DNR의사결정	1	
	암환자인식	1	
	죽음인식	1	
	간호연구논문분석	1	
	기타	6	
		소계	15(7.1%)

* 연구에서 2개 이상의 중심개념이 있을 때 종속변수 중심으로 선정함.

〈표 7-1〉종양연구의 주요개념 N=214

주요개념*	편수
삶의 질	23
교육/간호요구	17
통증(통증관리)	16
피로	13
자가간호행위	10
중재프로그램개발	9
오심/구토/식욕부진	8
희망	8
대처	8
주요개념*	편수
대체요법	6
스트레스	6
부담감	6
우울/무력감	5
원인지각	5
검진/예방행위	5
불안	4
구강불편감	4
고통	4
건강증진행위	4
영양상태/음식선호도	4

* 4편 이상의 연구에서 반복된 개념.

주요개념을 선정하였다. 종양연구의 주제로는 심리/영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41편(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조절 37편(17.3%), 삶의 질 24편(11.2%), 자가간호행위/건강행위 21편(9.9%), 교육요구 17편(7.9%)순으로 많았다.

종양연구의 주요개념에서는 삶의 질이 23편(1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요구 17편(7.9%), 통증 16편(7.5%), 피로 10편(4.7%), 자가간호행위 10편(4.8%), 중재프로그램개발 9편(4.2%)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심/구토, 식욕부진, 희망, 대처 개념이 각각 8편의 연구에서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IV. 논 의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만 5년 동안의 국내 종양간호학 연구 214편을 분석하였다. 이는 최선훈 등(1998)의 1980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만 18년 동안의 종양간호학 연구 문헌 149편에 비해 143%가 증가한 것이다. 최선훈 등(1998)의 연구에서 1995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만 4년 간의 연구가 1995년 이전 10년 간의 연구 문헌 수와 동일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종양간호연구는 1995년 이후 증가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간호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의 개설증가와 비례된다고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와 최선훈 등(1998)의 연구에서 학위논문이 각각 64.8%와 8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학위논문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이 본 연구에서 88.4%를 차지하고 있었고 최선훈 등(1998)의 연구에서도 석사학위 논문이 8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대한간호학회지 31편(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인간호학회지 24편(32.1%), 종양간호학회지 13편(17.3%)순이었다. 최선훈 등(1998)의 연구에서도 대한간호학회지와 성인간호학회지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으며 본 연구와 달리 종양간호학회지 게재는 없었다. 이는 종양간호학회지가 2001년 창간호가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게재별로는 양적 연구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실험연구가 86.2%를 나타냈다. 이는 최선훈 등(1998)의 종양 간호연구분석에서 비실험 연구가 69.8%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김희걸, 이영숙(1995)의 우리나라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분석에서 비실험연구가 89%, 전지자 등(1995)의 국내 간호학 석, 박사 학위논문분석에서 85.9%인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실험연구는 28편으로 14.3%에 불과했는데 이는 최선희 등(1998)의 1998년 이전의 종양간호연구분석에서 실험연구가 20%인 것에 비해 낮다. 특히 최선희 등(1998)의 연구에서 1995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만 3년 간의 기간에 실험연구가 상당히 증가되어 18.3%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1998년 3월 이후 국내 종양간호연구에서 실험연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추후 보다 활발하게 실험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질적 연구는 총 16편으로 현상학적 연구가 8편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최선희 등(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연구대상자는 암환자 대상연구가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일 암환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여러 종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4.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선희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단일 암환자대상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대상연구가 27편(17.8%)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 발생률이 2위(보건복지부, 2002)라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치료유형별로는 항암화학요법 대상자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방중심보다는 치료를 받는 환자 중심의 연구가 많음을 의미하며 최선희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종양연구주제에서는 예방/검진 혹은 원인 지각에 대한 연구는 총 10편으로 전체의 4.7%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설계별로는 해당되는 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연구는 사회적지지, 피로, 스트레스, 희망, 삶의 질 등의 개념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는 최선희 등(1998)의 연구에서 삶의 질, 우울, 희망, 불안 등의 개념이 많이 연구된 것과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피로 개념 연구가 최선희 등(1998)의 연구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암환자의 사회, 심리적 개념 뿐 아니라 증상조절에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할만하다. 실험연구에서 결과변수의 주제별 분석을 보면 자가간호, 불안, 구강간호, 통증관리, 신체기능, 삶의 질, 오심/구토 등을 조절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자가간호 행위는 간호교육중재로 대부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교육이 효과적인 중재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중재는 증상조절이나 부작용 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암환자의 통증정도 및 관리 중재에는 통증관리 교육

(3편)과 발반사마사지(2편)가 적용되었는데 교육은 통증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반사 마사지의 효과는 한편 연구에서는 지지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암환자의 불안완화에는 정보제공과 이완요법이 적용되었는데 이완요법은 2편 연구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정보제공은 3편 중 2편의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선옥 등(1997)의 국내 종양간호실험연구 25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이완요법이 불안감소에 효과가 컸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구강 불편감 완화에는 구강간호 중재가 적용되었는데 찬 생리 식염수를 이용한 구강간호와 구강간호 교육중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선옥(1997)등의 연구에서 구강간호가 구강 불편감에 유효크기가 큰 간호 중재방법으로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신체기능 증진에는 운동간호중재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2편의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선옥, 홍은영(1997)의 연구에서도 운동요법이 치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오심, 구토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3편)에는 이완요법, 심상요법, 향기흡입이 적용되었는데, 이완/심상요법은 효과가 없었으나, 향기흡입은 오심구토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완요법은 불안완화는 효과적(송미순, 신계영, 1987)이지만, 오심, 구토완화에는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진미 등, 1994; 송미순, 신계영, 1987; Arakawa, 1995)와 일치한다.

종양연구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면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심리/영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41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증상 조절(37편), 삶의 질(23편), 자가간호행위(21편), 교육요구(17편)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영적 문제에서는 희망, 스트레스, 부담감, 우울 등의 개념이 많이 다루어졌고 증상조절에서는 통증관리, 오심/구토가 주를 이루어 암환자의 주 호소 문제가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경향과 종양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1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논문은 연구출처, 연구설계, 대상자, 상관관계개념분포,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및 결과변수, 종양연구의 주제 및 개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양간호연구는 학위논문이 64.9%(139편)로 대부분이었고 그 중 석사학위논문이 123편(88.5%)이었다. 비학위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대한간호학회지 31편(41.3%)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별 분포는 양적 연구가 91.6%(196편)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실험연구는 28편(14.3%)에 불과하였다.
2. 연구대상자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71.4%(153편)이었으며, 진단명 분류 없이 암환자 대상의 연구가 44.1%(67편)로 가장 많았다. 진단명별 암환자 대상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대상연구가 28편(18.3%)으로 가장 많았다.
3.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피로, 스트레스, 희망 및 삶의 질 개념이 많이 다루어졌다.
4. 실험연구는 총 28편으로 간호중재는 간호교육중재가 6편(2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보제공, 통증관리, 구강간호연구가 각 3편으로 많았다. 실험연구의 결과변수로는 자가간호행위를 위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증관리(5편), 불안, 구강불편감, 오심/구토 완화를 위한 연구가 각 3편으로 많았다.
5. 종양간호연구의 주제로는 심리/영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41편(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조절, 삶의 질, 자가간호행위/건강행위, 교육요구순으로 많았다.
6. 종양간호연구의 주요 개념에서는 삶의 질이 23편(1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요구, 통증, 피로, 자가간호행위, 오심/구토, 식욕부진, 희망 및 대처개념등이 각 8편 이상으로 다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종양간호 연구 논문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실험연구가 미흡하며,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성인으로 아동대상의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종양연구의 대부분이 사회 심리적 변수에 초점을 둔 반면(임선옥, 홍은영, 1997; 최선혜 등, 1998) 최근의 종양연구에서는 증상조절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사회,

심리적 변수는 간호중재를 통해 일관되게 향상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상조절은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증상조절에 관한 종양간호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제적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증상조절에 관한 간호중재 연구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중재효과에 대한 간호중재의 효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희걸, 이영숙(1995).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분석. *대한간호*, 34(5), 68-79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실(2003). www.koreanurse.or.kr
- 박진미, 최명자, 유영수, 박정미, 박덕선, 구선애(1994).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 불안, 불편감 감소를 위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 효과. *대한간호협회 대구직할시지부 논문집*, 1-14.
- 보건복지부(2002). 한국 암 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 송미순, 신계영(1987). 근육이완요법이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 불안, 불편감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7(3), 195-203.
- 임선옥, 홍은영(1997a). 암환자 간호관련 국내 논문의 분석. *원주전문대학 학술논총*, 65-91
- 전시자 등(1995).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1개 대학원과 2개 특수대학원 논문 중심으로. *대한간호*, 33(2), 45-57.
-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2003). <http://211.198.225.163/dbbank>
- 최선혜, 남영화, 류은정, 백명화, 서동희, 서순림, 최귀윤, 최경숙(1998). 국내의 암관련 간호 연구논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3), 786-800.
- Arakawa, S. (1995). Use of relaxation to reduce side effects of chemotherapy in Japanese patients. *Cancer Nursing*, 18(1), 60-66.
- Smith M. C., & Stullenbarger, E. (1995).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 1981-1990. *Cancer Nursing*, 18(3), 167-179.

- Abstract -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In Korea: 1998-2003*

*Oh, Pok Ja***

The purpose of these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trend of researches done on oncology nursing in the past five years in Korea and to suggest its direction for the future research. Methods: 214 nursing studies published from 1998 to 2003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y were examined for the source, design of study, type of subjects, the intervention outcomes of experimental research, the key words and theme of the oncology research. Results: 1. 139(64.9%) of 214 studies were masters thesis and doctoral dissertations. There were 196(91.6%) quantitative researches and 18 qualitative researches. Quantitative research consisted of 28(14.3%) experimental and 168(85.7%) non- experimental studies. Among non-experimental studies, there were 53 correlations, 78 descriptives, 14 comparatives and 23 methodological studies. 2.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were cancer patients in

general(43.7%) and breast cancer patients (18.3%). According to the treatment types,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were the highest number distribution as 23 of all researches. 3. Social support, fatigue, stress, hope, and quality of life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concepts in correlational studies.4. Education, providing information, oral care, exercise, relaxation and foot massage were the most frequent nursing interventions. Most frequently measured outcomes variable

were self-care, pain control, nausea & vomiting, oral discomfort and anxiety. 5. Key words used most frequently were quality of life, educational need, pain controls and fatigue. 6. The themes of qualitative researches were illness experience, family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More than 50% of qualitative researches used phenomenologic method. Conclusion: Researches on cancer nursing in Korea have been increased. Descriptive design is being dominant and few experimental studies are being done For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rnational studies to compare, replicate and to establish th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Key words : Oncology nursing research, Integrative review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 Professor, Sahmyook University